

여수시, 전남도와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시동'



24일 전남도청 VIP실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개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개최 업무협약...연말까지 국제행사 승인·성공 개최 총력 다짐

“섬박람회 통해 무궁무진한 섬 가치와 잠재력 공유·논의의 장 되길”

여수시가 미래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시는 24일 전라남도청 전남도청 VIP실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최병용 도의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박

람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력과 지원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협약서에는 ▲섬박람회 공동개최,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 ▲박람회 인력지원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권오봉 시장은 “전남도와의 협약은 여수 제2의 도약을 가져올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섬박람회를 통해 무궁무진한 섬의 가치와 잠재력을 공유하고 섬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 나가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여수뿐만 아니라 전남의 섬 발전에 혁신적인 기회가 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국제행사 유치와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

작으로 부처 방문활동 등 본격적인 국제행사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와 함께 연말까지 국제행사 신청서를 행정안전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내년 7월 국제행사 심사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돌산진도지구 일원에서 개최될 계획이다. 200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해 전국적으로 4,000억 원의 생산효과와 약 6천명의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국제행사이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2020년 ‘고흥군 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

교육문화·체육 및 사회복지·산업 등 2개 분야

고흥군은 오는 11월 1일 제46회 고흥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상하게 될 고흥군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추천을 오는 9월 18일까지 받는다. 교육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산업 등 2개 부문으로 부문별 각 1인을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자의 자격은 군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아 고흥군 명예를 빛나게 한 자랑스런 군민으로 심

의위원회 의결로써 대상자를 결정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은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공적개요서, 명함판 사진, 자체사건 심의의결서, 사실조사 확인서 등 공적증빙자료(활동사진, 보도자료 등)를 첨부하여 추천하면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순천시 황전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에 탄력

공공시설 피해 143건·사유시설 275건 총 37억 피해

순천시 황전면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2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순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143건과 주택침수·농경지유실·가축피해 등 사유시설 275건이 접수되어, 총 37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전에서는 공공시설 42건, 사유시설 96건으로 총 138건에 21억원의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는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되었어도 해당 시군구에서 기준이 미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한 것을 2018년에 제도개선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황전면 지역은 공공시설, 농경지와 농림시설 복구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다.

허석 순천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대통령께 직접 건의



허석 순천시장이 용림지하차도 현장지휘를 하는 모습

해주시 소방청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전면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 웹드라마 ‘호접몽’, 국제 웹 영화제에 파란 일으키다

서울웹페스트 ‘베스트 드라마상’ 25개국 190편 작품 치열한 경쟁 “탄탄한 시나리오·영상미 일품”



여수시의 다섯 번째 웹드라마 ‘호접몽’이 국제 웹 영화제에서 베스트 드라마상을 거머쥐며 국제 웹 영화제에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여수시는 지난 22일 코로나19로 SNS 온택트 라이브 형식으로 개최된 제6회 2020 서울웹페스트 시상식에서 ‘호접몽’이 종합대상 격인 베스트 드라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25개국, 190편의 국내·외 작품이 31개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특히 여수시는 이번 웹페스트의 베스트 드라마 부문을 놓고 서울시 ‘궁궐의 연인’과 국가인권위원

회 ‘비밀의 비밀’을 비롯한 쟁쟁한 세계 유수의 후보작 20편과 경합했다. 서울웹페스트 관계자는 “‘호접몽’의 탄탄한 시나리오와 아름다운 영상미가 단연 돋보였으며,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는 타 지자체와 달리 2015년부터 매년 자체 제작의 노하우를 쌓아온 여수시의 노력이 눈부신 성과로 결실을 맺

었다”고 평가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여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웹드라마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힘써왔다”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작품으로 여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웹드라마의 내적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광양시 ‘시민의 노래’ 작사 공모 수상작 선정

대상 1편·가작 2편 선정...내년 5~6월께 선보일 예정

광양시는 대국민 작사 공모를 통해 ‘시민의 노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시정 상황실에서 김명원 광양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회, 교육기관, 전문가, 관련 단체, 언론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전국 공모 작사 선정작

3편에 대해 한 달여간 전문가 자문과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 이날 회의에서 대상 1편, 가작 2편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최종 선정된 대상작은 광양시와 광양시민을 대표할 수 있고, 시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밝고 희망찬 노랫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 홈페이지 공고에 발표 예정인 수상작은 대상 천만 원, 가작 2편은 각각 백만 원이 수여되며, 대상작은 전문 작곡가 용역을 통해 작곡 작업에 들어가 내년 5~6월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기섭 문화예술과장은 “광양 ‘시민의 노래’에는 시의 문화와 비전이 담겨있는 만큼 20~30년 후에도 시의 상징성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 산 구